



“조선정부는 처음으로 일본, 영국, 홍콩등 외국과 우편물교환협정을 체결하고 11월 18일 최초로 근대적인 우편활동을 시작”

● 세계와 소통시작

1881년 조선정부가 일본에 파견한
조사시찰단 보고서



일본문견사건 <日本聞見事件>



일본공부성 <日本工部省>



보빙사 <報聘使>

1883년 미국 보빙사절단의 사진
우정총국 초대 총판 홍영식(우측 앞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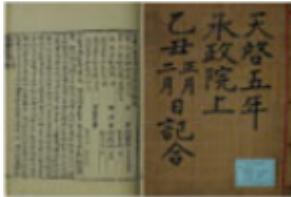
홍영식복명문답기 <洪英植復命問答記>

1883년 미국 보빙사절단의 사진
우정총국 초대 총판 홍영식(우측 앞줄)

◎ 근대 우정제도가 조선에 도입되다.



한성순보 <漢城旬報>
서양각국의 근대우정 현황을 소개한 기사



승정원일기 <承政院日記>
고종의 우정총국 창설 왕명



우정집신분전구역도 <郵政集信分傳區域圖>
1884년 우정업무 시작 초기의 서울안
우표판매소 및 구역을 표시한 지도



◎ 세계를 향한 조선의 한걸음



미안 <美案>

일안 <日案>

주한미국, 일본공사관에
“우정규칙”을 송부하고 조선의
우정시무 개시를 통고한 공문



문위우표 5종 <文位郵票 5種類>

한국 최초의 우표

(100문의 고가우표는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 제작)



만국우편연합 위임장 및 여권

<萬國郵便聯合 委任狀, 旅券>

1897년 제5차 만국우편연합(UPU)
총회에 참석한 전권위원 민상호의
위임장과 여권

◎ 우리나라 초기 우체국



1900년 우정총국 전경



날짜 도장



저울과자

1900년대 우체국에서 재사용하였던 물품



우전선로도본 <郵電線路圖本>

전국의 우체사, 전보사의 위치와 선로가 표기된 지도

◎ 초대 우정총판 홍영식



초대 우정총판 홍영식 (1855~1884) 한국우정의 아버지홍영식은 개화기의 선각자로서 우리나라의 근대 우편제도의 창시자이다.

1883년 보빙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우정성과 뉴욕우체국 등을 시찰한 뒤 고종에게 근대 우편제도의 도입을 진언하고,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을 창설하여 초대 우정총판이 되었다.

같은 해 11월 18일 서울-인천 간에 최초로 우편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새로운 우편시대를 열었다. 우리나라의 근대 우편제도를 창시하여 오늘날 세계 속의 한국우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그의 개화와 개혁의 정신은 우리 후손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다.